

독일의 종교개혁 도시들*

-종교개혁도시 바르트부르크 성(城)의 인문학적 의미-

박종소**

- I. 들어가는 말
- II. 독일의 종교개혁도시들
- III. 바르트부르크 성에서의 루터의 성경번역과 그 영향
- IV. 나오는 말

<국문초록>

2017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로 인하여 종교개혁과 루터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본 논문도 이런 관심에서 구상되었다. 본고에서는 독일의 대표적인 종교개혁도시들 몇 곳을 간략하게 소개한 후에, 루터의 종교개혁이 가지는 인문학적 의미를 독일의 종교개혁도시 중의 한 곳인 바르트부르크 성(城)을 예로 들면서 살펴보고자 한다.

독일의 아이제나흐에 위치한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루터는 1521년 5월부터

* 이 글은 2017학년도 1학기에 숭실대학교 인문대학이 주관하여 총 8회 예정으로 개최되었던 '목요 인문 아카데미: 세계의 도시. 인문학적 경관'에서 필자가 했던 제1주차 강연(제목: 독일의 종교개혁 도시들)을 수정 및 보완한 것이다.

** 숭실대학교 독어독문학과 초빙교수

이듬해 3월까지 머물면서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된 에라스무스의 신약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다. 이를 기점으로 그때까지 체계 없이 지역마다 방언 형태로 존재해오던 문어체 독일어의 중심이 잡히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바르트부르크 성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되게 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1521년 가을에 완역된 바르트부르크 성에서의 신약성경번역과 이후 구약성경에 대한 번역이 완결되면서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루터의 독일어 성경을 읽었고, 그 자녀들에게도 루터 성경을 읽어 주었으며, 그 자녀들은 또 그들의 자녀들에게 읽어 줌으로써 그리고 그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의 말과 표현방식들이 독일인들에게 표준 독일어로 자리를 잡아가게 되었다.

기독교 신앙이 삶의 실존적 기반이었던 당시 독일인들이 그들의 신앙적 체험들을 일기와 에세이 형식 등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기록하고, 더 나아가 서로 친한 지인들과 신앙고백적인 내용들을 주고받는 편지왕래문화 등이 가능하게 된 것도 루터의 독일어 성경번역 없이는 상상하기 힘들다.

인간의 생각이 구체적으로 작동해서 인간의 방식으로 자연에 변화를 가하는 것.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를 문화(文化)라고하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세계의 형태를 문명(文明)이라고 한다면, 기독교적 종교성이 작동해서 기독교적 종교성의 방식으로 자연과 인간의 삶에 변화를 가하고 그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를 기독교문화 내지는 기독교문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적 종교성은 유럽인들의 존재여부와 상관이 있는 인간의 동선을 알려주는 무늬, 즉 인문(人紋)인 것이다. 그러므로 유럽 내의 어떤 지역, 어떤 나라의 인간의 무늬를 알려면 그것이 철학이든 역사이든 문학이든 기독교적 종교성과 그로 인한 표현방식은 반드시 고려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 관점에 동의하기 때문에, 루터의 성경번역이 가져온 영향사의 관점에서 독일의 경건주의를 부각시키고 있고 또한 독문학에서 성서적 언어가 가지는 의미를 괴테의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통하여 간략하게 논증하고자 하였다.

핵심어: 루터, 독일의 종교개혁도시, 마르트부르크 성과 성서번역,
독일의 경건주의, 문학에서의 성서적 언어

I. 들어가는 말

종교개혁(1517)이 일어난 후에 루터(Martin Luther, 1483-1546)는 여러 차례 종교개혁의 정당성을 공적(公的)으로 밝혔어야만 했다. 그 대표적인 예 중의 하나가 신성로마제국황제인 칼(Karl) 5세 앞에서 종교개혁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어야 했던 때다. 1521년 4월 17일과 18일 이틀에 걸쳐 보름스(Worms) 대성당에서 루터에 대한 두 차례의 신문이 열렸는데, 여기서 루터는 교황청으로부터 그에게 내려진 파문의 부당함에 대하여 그리고 종교개혁의 당위성에 대하여 역설하면서 그에 대한 신문을 의연하게 마치고 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취소할 수 없고 또 취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 여기 지금 서있는 나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¹⁾

황제의 면전에서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굽히지 않고 4월 26일 보름스를 떠나는 루터의 모습은 당시 성직자들의 갖가지 비신앙적 적폐에 실망과 분노를 품고 있었던 유럽인들에게 헤라클레스의 그것으로 필적될만한 영웅적 모습 그 자체였다고 한다.²⁾ 종교개혁을 관철시키고 자리 잡게 하기위한 루터의 끝없는 싸움은 이후로도 계속되었으며, 1524년 에라스무스(Erasmus von Rotterdam, 1464-1536)와의 ‘인간의 자유의지’ 논쟁으로 다시 한 번 절정으로 치닫는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루터가 죽은 지 9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즉 1555년 아

1) 롤란드 베인톤 저, 이종태 역, 마틴 루터의 생애, 생명의 말씀사 1982, 198쪽.

2) 상계서, 193~198쪽 참조.

우구스부르크 종교화의를 통하여 가톨릭으로부터 신교(新敎)로 공식 인정을 받게 된다. 물론 개신교의 입장에서는 모든 개인의 신앙의 자유가 적시되는 베스트팔렌조약(1648)까지 더 시간이 필요했지만, 어쨌든 루터의 종교개혁은 천년 이상을 지속해오던 기독교를 구교와 신교로 양분하는 분기점이 되었고, 또한 유럽 역사를 중세와 근대로 나누는 결정적 사건이 되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유럽 인구의 절반가량이 가톨릭에서 개신교로 돌아섰다.

유럽 중세 시작의 수치적 시점인 서기 313년, 그러니까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 그동안 박해받아오던 기독교가 공인된 그 해부터, 이태리 반도로부터 독일과 북해 그리고 지금은 폴란드 땅이 된 동프로이센을 거쳐서 광활한 러시아 지역 끝까지 기독교가 퍼져 나가기에는 그야말로 장구한 시간이 걸렸지만, 아무튼 유럽은 313년부터 중세 천년을 지나 1517년까지 종교적으로 기독교라고 하는 일원적 세계관 속에서 살았다.³⁾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은 당시 유럽인들의 패러다임을 뒤흔들고 새로운 신앙적 인식과 그로 인한 사상과 삶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그 자체였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말이 '개혁'이지, '혁명'과 다름없었다.

2017년 올해로 종교개혁은 500주년이 되었다. 이로 인하여 종교개혁과 루터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루터와 종교개혁을 가시적으로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독일의 종교개혁도시들이 올해 독일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격년으로 개최되는 독일 개신교의 최대 이벤트인 '교회의 날(Kirchentag)' 행사(제36차: 2017년 5월 25일-28일)가 베를린과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내걸면서 종교개혁의 시작을 알린 비텐베르크(Wittenberg)에서 공동으로 개최된 것도 이런 일반의 관심을 반영한 것이고, 또한 실제로도 참가 인원이 예년에 비해 수 만 명 증가했다고 한다.

3) 박종소 저, 17세기 독일 종교서정시에 나타난 교회비판의 사상적 배경, 도서출판 하늘과 땅 2008, 13~14쪽.

본 논문도 종교개혁 500주년에 대한 관심에서 구상되었다. 본고에서는 독일의 대표적인 종교개혁도시들 몇 곳을 선별하여 아주 간략하게 소개한 후에, 루터의 종교개혁이 가지는 인문학적 의미를 독일의 종교개혁도시 중의 한 곳인 바르트부르크 성을 예로 들면서 살펴보고자 한다.

II. 독일의 종교개혁 도시들

먼저 언급해야 할 것은, '종교개혁도시(Reformationsstadt)'라는 명칭은 필자에 의해 고안된 것이 아니라, 유럽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라는 점이다. 유럽에서 '종교개혁도시'라는 명칭을 지니는 도시들은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프랑스, 이태리, 체코 등 유럽 총 15개국에서 모두 81개 도시(내지는 장소)에 달한다. 이 81개 종교개혁도시들 중에서 독일에 39개가 분포되어 있다.⁴⁾ 본 논문에서는 이 중 루터와 보다 관련이 있는 대표적인 몇 곳을 소개할 것인데, 이 내용의 출처는 인터넷 독일판 사이트 "germany.travel: Martin Luther 2017: 500 Jahre Reformation. Eine Spurensuche, Wirkungsstaette"이다. 여기서 소개되고 있는 독일의 종교개혁도시들 중에서 몇 곳을 아래와 같이 간략하게 요약해보았다.

● 루터의 도시 아이슬레벤(Lutherstadt Eisleben)

루터는 태어난 이듬해에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그의 삶에서 아이슬레벤에 거주한 기간은 실제 얼마 되지 않는다. 그러나 아이슬레벤이 '루터의 도시(Lutherstadt)'로 불리며 주목받는 이유는, 아이슬레벤이 루터의 출생지이자 사망한 곳이기 때문이다. 루터는 사망 직전 인근 도시로 가던 중심장관련 질환이 발생하여 아이슬레벤에 머물며 치료를 받다가 이곳에서 숨을 거두게 된다.

4) Wikipedia, Die freie Enzyklopädie, Art. "Reformationsstadt Europas".

● 루터의 도시 비텐베르크(Lutherstadt Wittenberg)

독일의 종교개혁도시이면서 아이슬레벤과 함께 '루터의 도시'라는 명칭을 부여받고 있는 또 하나의 도시가 바로 비텐베르크이다. 비텐베르크가 있는 작센안할트(Sachsen-Anhalt) 주(州)와 인근의 4개 주들에서는 종교개혁이 시작된 10월 31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루터가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거주했던 도시가 비텐베르크이기 때문에, 루터와 관련된 유적들이 가장 많다. 루터가 살았던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건물은 '루터하우스'라는 이름의 박물관이 되었는데, 다른 지역에도 루터와 관련된 박물관들이 있지만 이곳이 가장 명성이 높다. 그리고 루터하우스 인근에 루터가 로마 교황청의 파문교서를 불태워버린 사건을 기념하는 기념식수가 있는데, 이 나무를 '루터의 (참)나무'라고 부른다.

또한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내건 성(城)교회(Schlosskirche Wittenberg) 말고 비텐베르크 시내 중심에 있는 시립교회(Stadtkirche Wittenberg)는 루터가 결혼식을 올렸고 루터의 자녀들이 세례를 받은 곳이다. 여기서 루터는 여러 차례 설교했었다. 아이슬레벤과 비텐베르크 두 곳 모두 소도시들이지만, 수많은 순례자가 찾아오는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성지로 손꼽히며, 그래서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 독일 관광의 하이라이트로 가장 주목받는 종교개혁도시들이다.

● 에어푸르트(Erfurt)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 루터의 생애에 중요한 변곡점이 된 도시이다. 루터는 법학도로 에어푸르트대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부모님 댁에 다녀오는 길에 들판에 내리치는 벼락을 보고 공포에 휩싸여 하느님께서 자신을 살려주시기만 한다면, 수도사가 되겠다고 서원한다. 루터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사제가 될 것을 결심한다. 루터가 들어간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은 여전히 에어푸르트에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고, 루터가 사제 서품을 받고 공식적으로 신부가 된 대성당도 이 곳에 웅장하게 서있다. 루터에 대한

에어푸르트의 의미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루터가 종교개혁적 신앙관을 정하는데 에어푸르트의 수도원에서 보낸 구도자로서의 시간들이 큰 토대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⁵⁾

● 아우구스부르크(Augusburg)

보름스 대성당의 황제 면전에서 신문 받기 이전에 아우구스부르크에서 루터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는데, 여기에 참석했던 루터는 살해의 위협으로 인하여 목숨이 위태로울 뻔 했다고 한다. 또한 아우구스부르크는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 내지는 '아우구스부르크 종교회의'와 같은 종교개혁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이 발생한 도시이기 때문에, 루터의 생애뿐 아니라 종교개혁 전체를 놓고 이야기할 때도 빼놓을 수 없는 곳에 속한다.

● 하이델베르크(Heidelberg)

5) 루터는 에어푸르트 수도원에서 수도사로서 구도의 길을 걸으면서, 치열하게 살았지만 늘 마지막에는 해결되지 않는 결론으로 괴로워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너무도 거룩하고 본인 자신은 너무나도 죄인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니 루터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는가. 그래서 죄인인 나 자신을 깨끗하게, 정결케 하기 위해서 당시 로마가톨릭에서 가르쳤던 자선을 베풀기도 하고 성지를 방문하게 된다. 로마도 방문하여 돌계단을 무릎으로도 기어 올라가 봤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 또 기도하고 회개하고 금식도 하고 조그만 죄라도 있으면 고해성사를 끊임없이 해보았지만, 마음의 평화가 없었다. 내가 이런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도저히 나갈 자신이 없고 마음의 평화가 없는 것이었다. 루터는 아마도 민감한 양심을 가진 결벽증에 가까운 성격의 사람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래서 마음으로 짓는 조그만 죄에도, 운동주의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는' 그런 마음처럼 늘 괴로워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루터의 고해성사를 끊임없이 들어야 했던 수도원의 주임신부인 슈타우피츠가 루터로 하여금 비텐베르크대학교 신학과로 가서 성경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했다. 그곳에서 신학박사가 되었고, 슈타우피츠의 조언으로 성경을 더욱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성경을 대학생들에게 강의하게 되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루터의 종교개혁사상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말씀신학' 혹은 '은혜신학'으로 불리는 루터의 종교개혁적 신념이 형성되던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루터는 인간의 죄성과 그로 인한 구원의 문제를 성경을 통해 해결하였던 것이다. 박경수(장로회신학대학교 역사신학과 교수/목사), 설교 '종교개혁 498주년 기념강좌, 은혜와 믿음으로 받은 선물, 마르틴 루터', 인천 동노회 남선교회 순회헌신예배 주관, 2015년 8월 2일(youtube 게시일).

당시 신성로마제국 영토 내 인문주의의 본산이었던 하이델베르크에서 루터는 종교개혁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그의 종교개혁사상이 신성로마제국 전역으로 퍼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원래는 교황청이 뜻내기 사제인 루터가 '선배님'들 앞에서 망신당하고 혼쫓나보라는 의도로 루터에게 발언기회를 준 것이었는데, 루터의 주장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결과적으로 종교개혁이 순식간에 퍼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 라이프치히(Leipzig)

루터는 1519년에 라이프치히에서 벌어진 종교논쟁에서 당시 가톨릭의 대표적인 신학자였던 요하네스 에크(Johannes Eck, 1494-1554)와 격렬한 토론을 벌인다. 이 토론을 통하여 가톨릭 교리와 개신교 교리 간의 차이가 이전보다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양측이 타협할 수 있는 접점을 찾을 수 없게 되었고, 그 결과 루터는 가톨릭과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게 되었다.

● 보름스(Worms)

이미 앞서 언급했듯이 루터는 이곳에서 열린 신성로마제국 의회에 소환되어 청문회 자리에 섰다. 이 자리에서 그는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라는 교황청의 명령을 거부하였고, 이로 인하여 루터는 제국으로부터 추방된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것은 누가 루터를 죽여도 법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뜻이니, 사실상 사형선고나 다름없었다. 보름스 대성당 앞의 루터기념비는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개혁 기념물로 꼽힌다.

● 바르트부르크 성

아이제나흐(Eisenach)에 위치한 이 성에서 종교개혁으로 인해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던 루터는 융커(J. Junker)라는 가명으로 은신하면서 신약성서를 독일어로 번역하였다. 이를 기점으로 체계 없이 지역마다 방언 형태로 존

재하던 문어체 독일어의 체계가 잡히기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작성된 1519년판 에라스무스 신약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한 것이다. 아이제나흐는 루터가 소년 시절 학교에 다녔던 도시이기도 하다. 참고로 루터는 코부르크(Coburg)에서 구약성서를 독일어로 번역함으로써 성서 신구약 전체 독일어 번역을 완결 지었다.

III. 바르트부르크 성에서의 루터의 성경번역과 그 영향

위에서 소개한 독일의 종교개혁도시들 중에서 세 곳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선정되어 있는데, 그 세 곳은 아이슬레벤, 비텐베르크, 바르트부르크 성이다. 아이슬레벤과 비텐베르크에는 루터와 관련된 여러 유적지들이 있기 때문이고, 바르트부르크 성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된 이유는 루터의 또 하나의 매우 중요한 '유적'이라 할 수 있는 성경번역이 여기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바르트부르크 성에서의 루터의 성경번역이 가지는 의미를 크게 보면 두 가지이다. 하나는 루터가 중역(重譯)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루터 당시에 독일어로 번역된 성경이 있긴 했지만, 헬라어가 아닌 라틴어로 중역된 것이었다. 하지만 루터는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헬라어 원전의 1519년판 에라스무스 신약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성경번역을 축역(逐譯)이 아닌 의역(意譯)으로 했다는 점인데, 전자인 축역은 목표 텍스트보다는 원천 텍스트에 훨씬 더 무게를 싣는다는 점에서 원천 텍스트 지향적이라고 할 수 있다.⁶⁾ 서구 번역사에서 '70인역'⁷⁾ 성경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축역'의 전통은 의역과 함께 번역의 집

6) 김옥동 지음, 번역의 미로, 번역에 관한 열두 가지 물음, 글항아리 2011, 159쪽.

7) 흔히 '70인역 Septuagint'으로 일컫는 성서는 서양에서 축역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 이 성서는 히브리어 구약성서 원문을 그리스어로 옮긴 최초의 번역이다. 기원전 2-3세기에 이집트와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디아스포라)은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위하여

을 떠받들고 있는 두 기둥 가운데 하나였다. 그런데 중세 가톨릭교회에서는 성서는 말할 것도 없고 신학서나 철학서를 번역할 때도 원천 텍스트의 의미를 정확하게 옮겨야 한다는 축역의 원칙을 고수했다. 이러한 원칙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이단의 낙인을 찍기 일쑤였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인문학자이자 서양 최초의 번역이론가라고 할 수 있는 에티엔 돌레(E. Dolet, 1509-1546)는 서구 번역사에서 번역을 축역의 방식으로 충실히 하지 않았다고 해서 화형을 당한 대표적인 인물로 꼽힌다.⁸⁾

이런 측면에서 보면 돌레와 동시대를 살았던 루터에게도 의역은 위험천만한 일이었을 텐데, 루터는 의역에 대한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 루터는 성서 번역 또한 '의미 대 의미'로 번역하는 의역 방식을 택했다. 루터는 『통역에 관한 서한 Sendbrief vom Dolmetschen』(1530)에서 자신이 지나치게 자유로운 번역을 시도한다고 비난하는 비평가들에게 맞서 자신의 번역방식을 다음과 같이 고집하고 있다: “무엇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집에 있는 어머니들, 골목에서 노는 아이들, 저갯거리에서 일하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직접 물어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그들의 입을 주시하여, 그에 따라 번역해야 한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은 그 말을 이해하고,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독일어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⁹⁾

번역의 방식에 대한 논란과 관계없이 루터의 성경번역은 결과적으로 독일어 통일의 기반을 만들어냈다. 루터의 성경번역은 당시 여러 방언으로 사용되던 문어체 독일어가 루터의 독일어로 전환되는 기틀을 만들어낸 그런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다는 것은 당시 구교에서

히브리어로 기록된 자신들의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하기 시작했다. '토라'라고 하는 모세 5경은 기원전 3세기 중반에, 나머지는 기원전 2세기에 번역했다. 당시의 번역전통에 따라 대부분 축역으로 번역된 '70인역' 성서는 뒷날 모든 성서의 원천이 되다시피 했다. 이 성서를 원천 텍스트로 삼아 라틴어 성서가 번역되어 나왔다. 서구번역사에서 '70인역' 성서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축역 전통은 번역의 집을 떠받들고 있는 두 기둥 가운데 하나였다. 상계서, 160~162쪽.

8) 상계서, 161~162쪽.

9) 라데군디스 슈톨체 지음, 임우영 외 옮김, 번역이론 입문. 번역학 꿰뚫기,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11, 9쪽.

신교로 돌아선 신성로마제국 인구의 약 절반가량이 루터의 독일어 성경으로 읽게 되었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1521년 가을에 완성된 바르트부르크 성의 신약성경번역과 이후 구약성경에 대한 번역이 완결되면서 신성로마제국 내에서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루터의 독일어 성경을 읽었고, 그 자녀들에게도 루터의 독일어 성경을 읽어 주었으며, 그 자녀들은 또 그들의 자녀들에게 읽어 줌으로써 그리고 그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루터의 독일어 성경은 독일인들에게 어느덧 표준 독일어로 자리를 잡아가게 되었다. 기독교 신앙이 삶의 실존적 기반이었던 당시 독일인들이 그들의 신앙적 체험들을 일기와 에세이 형식 등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기록하고, 더 나아가 서로 친한 지인들과 신앙고백적인 편지들을 주고받음으로써 훗날 독일의 대중문화로까지 자리 잡게 된 편지왕래문화¹⁰⁾의 길이 열린 것도 루터의 독일어 성경번역 없이는 상상하기 힘들다. 또 괴테(1749-1832)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전 유럽의 베스트셀러가 되고, 나폴레옹은 이 작품을 일곱 번이나 읽었다는 일화도 루터의 성경번역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언급해야 할 것은, 루터의 독일어가 표준 독일어로 자리 잡아가는 과정에서 독일 경건주의(Pietismus)의 역할이 매우 컸다는 점이다. 이는 방금 언급했던 독일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앙과 관련된 일들, 즉 신앙상의 유혹과 좌절, 무력감 그리고 신앙으로 인하여 생겨난 기쁨과 환희 등을 에세이나 일기 등으로 남기고, 더 나아가 편지로 왕래하는 등의 대중문화가 정착된 것도 이 경건주의 시기였고 또한 그 어떤 시대보다 경건주의 때처럼 기독교신앙과 관련된 읽을거리가 많이 출판되고 널리 보급된 적은 없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1740년대에 독일에서 간행된 모든 출판물의 75%를 경건주의와 관련된 서적들이 차지했다.¹¹⁾

10) 박종소 저, 괴테와 「교회와 이단의 역사 Kirchen- und Ketznerhistorie (1699-1700)」, 『독일어문학』 제36집(15권 1호) 2007년 3월, 37쪽.

11) 박종소 저, 17세기 독일 종교서정시에 나타난 교회비판의 사상적 배경, 17~18쪽.

경건주의는 근원적으로 보면 30년 종교전쟁(1618-1648)¹²⁾에서 비롯되고 있다. 1517년 종교개혁 이후 구교와 신교간의 갈등은 1555년 종교화의로 통합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미봉책일 뿐 그 갈등은 지속되다가 결국 전면적인 양상으로 터진 것이 30년 종교전쟁이었다. 30년 전쟁은 같은 기독교인 신교와 구교 간에 일어난 종교전쟁이었다. 신교도, 구교도 동일한 하나님 혹은 하느님의 이름으로 전쟁의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같은 십자가 앞에서 출사표를 내걸고 전장으로 나갔던 부조리한 전쟁이었다. 30년 동안 지속되었던 전쟁의 참담함을 목도하는 당시의 지식인들에게 삶은 이해할 수도 이해되어지지도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의구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실존 여부조차도 의심하게 되는 근본적인 회의를 안겨다 주었다. 이런 정황의 여파로 무신론이 확산되었으며, 또한 세속의 쾌락을 추구하는 경향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도처에서 벌어지는 죽음의 체험은 혹시 자신에게도 곧 들이닥치지 않을까하는 공포와 위협으로 사람들을 몰아갔고, 이는 다시 내세에 대한 강렬한 동경으로 이어져 이전보다 자신을 더 신앙적으로 몰입시키는 금욕적 삶의 태도로 양립되어 나타났다.¹³⁾

하지만 당시의 개신교회는 경건하게 살고자하는 간절한 사람들의 신앙적 욕구를 채워주지 못했다. 왜냐하면 당시 개신교의 제도교회(Amtskirche) 내에서는 자파(自派)의 정통성 주장을 위한 '논쟁신학'에 의한 '개신교 정통주의'의 영향으로 인하여 설교는 은혜가 되지 못했고, 개신교회 자체가 전반적으로 점점 더 경직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¹⁴⁾ 이런 경향성에 반대하여 민

12) 30년 종교전쟁의 전쟁터가 되었던 독일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고통을 겪었다.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스웨덴에서 온 용병들은 약탈과 살인을 일삼았고 전답이나 마을, 도시들이 황무지로 변해버렸다. 전쟁이 시작되던 때 1800만 명이던 인구가 3분의 2밖에 남지 않게 되었다. 이런 손실은 독일의 정치적, 경제적 발전에 '역사의 수레바퀴를 100년쯤 뒤로 돌린' 심각한 장애를 안겨 주었다. 독일이야기, 독일어권 유럽의 역사와 문화 1, 서울대학교 독일학연구소 임종대의 6명 공저, 거름 2004, 92~93쪽.

13) 전쟁의 참상으로 인한 17세기의 이런 상반된 행동양식이 다음의 저서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Hartmut Lehmann: Das Zeitalter des Absolutismus. Gottesgnadentum und Kriegsnot, Stuttgart usw, 1980.

14) 이 같은 쇠신을 통하여 경건주의자들은 그동안 중단되었던 루터의 종교개혁이 그들의 현재

는 사람들 하나하나의 마음을 영적으로 쇠신시키고 믿음의 실천적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목회(牧會)를 대안으로 내놓으면서 교회개혁을 이루고자 했던 것이 경건주의운동이었다. 경건주의는 17세기와 18세기에 걸쳐 독일 개신 교내에서 일어났던 종교개혁 이래로 가장 근원적이고 영향력이 광범위했던 기독교 신앙의 쇠신운동이었다.¹⁵⁾

그리고 경건주의는 교회사에서 뿐만이 아니라, 독문학사에서 가지는 의미 또한 매우 크다. 경건주의는 후기 바로크 문학사조부터 괴테시대 사이에서 언어적, 문학적 혁신을 위한 가장 영향력 있는 동인(動因)으로 평가되는데, 경건주의가 독일문학사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증거를 당시의 대표적인 독일 작가들 중 상당수가 경건주의 집안에서 자라났거나 경건주의 교육기관에서 성장했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유명한 작가들을 예로 들어 본다면 이미 언급한 괴테 그리고 쉴러(Schiller), 보드머(Bodmer), 레싱(Lessing), 클롭슈토크(Klopstock), 하만(Hamann), 헤르더(Herder), 뷔르거(Bürger), 렌츠(Lenz), 모리츠(Moritz), 클라이스트(Kleist) 등등을 꼽을 수 있다.¹⁶⁾

루터의 독일어는 경건주의를 거치면서 기독교적 종교성을 직접적으로 때론 비유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보편적인 성서적 언어로 자리잡아가게 되었고, 이제 이 성서적 언어는 독일 지식인들에게 의사소통뿐만이 아니라 문학

삶속에서 참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었다. 기독교인의 삶과 관련해서는 개개인 영혼의 각성이 복음의 핵심으로 파악되었다. 경건주의자들은 영혼의 각성을 통하여 거짓 경건과 위선으로부터 자신들을 구별하고자 했으며 또한 그들 내부에 아직 완전히 없어지지 않은 신적인(göttlich) 품성을 인식하고 느끼게 되면서 거룩한 삶의 전제가 되는 영적 거듭남을 중요시하였다. 경건주의는 인간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고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게 함으로써 말뿐이 아닌 현실에서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는 실천적인 신앙생활을 요청하였다. 그들은 '진짜' 믿는 사람들로만 이루어진 공동체를 만들고 그 안에서 실천적 사랑의 행위를 통하여 또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곧 있게 될 것으로 믿으면서 그때를 준비하는 종말론적 단호함으로 '세상'과 거리를 두고 자신을 경계하며 살았다. 박종소 저, 17세기 독일 종교서정시에 나타난 교회비판의 사상적 배경, 17쪽 참조.

15) Vgl. Hans-Jürgen Schrader: Art. "Pietismus", in: Sachlexikon Literatur, hrsg. von Volker Meid, München 2000, S. 692~700.

16) 박종소 저, 17세기 독일 종교서정시에 나타난 교회비판의 사상적 배경, 17~18쪽.

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소통의 도구가 되었는데, 우리는 그 예를 1774년에 출간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서 찾아볼 수 있다.

괴테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서 그의 터질 것 같은 내면적 고통과 분노를 베르테르를 통하여 작품의 많은 부분에서 성서적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성서적 언어의 의미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그가 이 작품을 통하여 표현하고자 했던 의도는 정확히 파악될 수 없다. 예를 들면 베르테르가 “나는 나의 아버지에게로 갈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나, 베르테르의 연인 로테(Lotte)의 아버지를 염두에 두고 말하는 “나는 너의 아버지에게로 갈 것이다”라는 표현에서 독자가 만일 “아버지”를 단순히 일반적인 누구의 어떤 아버지라면, 즉 이 대목에서의 ‘아버지’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Gott Vater)를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면, 이 작품을 이해하는 통로는 처음부터 막혀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베르테르가 말하고 있는 “나의 아버지”와 “너의 아버지”를 독자 또한 ‘하나님 아버지’로 같이 이해하며 작품을 읽어 나갈 때에야 비로소, 베르테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그가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결연함에 대한 암시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베르테르가 말하고 있는 “아버지”는 또한 베르테르의 숨 막히는 현실과 그로 인한 슬픔과 고통 그 모든 것이 녹아 없어지는, 아니 아예 삶의 고통을 느낄 필요가 없는 그런 영적(spirituell)인 안식처를 의미하기도 한다.¹⁷⁾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이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서 포도주에 관한 언급이 나온다. 그런데 기독교의 성서적 언어나 상징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이 포도주는 단순한 음료로 취급될 수밖에 없다. 즉 베르테르의 자살 당일인 12월 22일 화요일 날 낮에 베르테르는 어린 시종에게 빵과 포도주를 자신의 방으로 가져 오게 하고, 또 이날 밤 죽기 직전 다시 포도주 한 병을 더 가져 오게 하고 있다. 베르테르의 이런 행위가 성경에서 예수가 골고다 언덕으로 가기 전에 행한 최후의 만찬¹⁸⁾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은 기독교 문화와 성서

17) 박종소, 괴테의 「베르터」에 나타난 성서적 표현과 그 의미, 성서적 암시를 통해서 본 베르테르의 죽음, 『독일문학』 제117집(52권 1호) 2011년 3월, 71~74쪽 참조.

18)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는 죽기 전날 열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행하는데, 그때 빵

적 언어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전혀 낯설지 않은 연상 작용이다. 또한 베르테르가 12월 22일 낮에 빵과 포도주로 식사 한 후에 비가 오는데도 밖에 나갔다가 밤이 되어서야 들어왔다는 묘사도 성경에서 예수가 최후의 만찬을 마친 그날 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면서 죽음을 준비하는 일련의 장면들을 떠올리게 한다.¹⁹⁾

그리고 베르테르가 권총 자살하기 직전에 피테는 베르테르로 하여금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있다. 그것도 적포도주를.²⁰⁾ 어째서일까? 자살충동을 더 이상 제어하지 못하는 베르테르의 절박한 상태에는 알코올 도수 36도 이상의 독한 독일식 소주가 더 적격이 아니었을까?

작가 피테는 베르테르로 하여금 적포도주를 독주보다 곱상해서 마시게 하고 있지 않다. 피테는 이를 통하여 베르테르의 죽음을 성경 속의 예수의 죽음으로 승화시키려고 의도하고 있는 것이다. 베르테르의 고향된 죽음을 직접적이 아닌, 암시적으로만 표현해야하는 이 대목에서 피테의 의도를 알게 하도록 독자들에게 잠깐 스치며 지나가는 상징이 포도주다. 성경에 보면 포도주는 예수가 골고다 언덕으로 가기 전, 최후의 만찬 때 사용되어 예수의 피를 상징하고 있고 또한 예수가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어가는 희생으로도 상징된다. 이런 성서적 상징의 포도주를 피테는 베르테르의 자살 직전에도 도입하고 있다. 피테는 이 성서적 상징을 통하여 베르테르의 죽음이 그의 로테에 대한 사랑이 실현되지 않아서, 그것으로 인해 촉발된 단순히 혈기에 찬한 젊은이의 충동적 죽음이 아니라, 예수가 자신은 전혀 죄가 없지만, 구속사적(救贖史的) 차원에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그런 숭고하고 장엄한 희생의 죽음(Opfertod) 그 자체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베르테르의 죽

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남의 죄를 대속(代贖)해서 죽는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고 있다. 마태 26:26-28, 마가 14:22-26, 누가 22:14-20, 고전 11:23-25를 참조할 것.

19)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마태 26:39). 박종소, 피테의 「베르테르」에 나타난 성서적 표현과 그 의미. 성서적 암시를 통해서 본 베르테르의 죽음, 『독일문학』 제117집(52권 1호) 2011년 3월, 64~66쪽 참조.

20) 원문에는 “Von dem Weine hat er nur ein Glas getrunken.”이라고 되어 있다.

음은 자유로운 사상과 감정을 질식시키는, 당시의 기성적 풍토로 인해 숨 막혀 죽어가는 젊은 세대의 정신적 죽음을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더 나아가 기성사회를 향한 강력한 저항의 행위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²¹⁾

IV. 나오는 말

기독교라는 단일종교가 천년을 훨씬 넘어 그 긴 시간동안 유럽 사람들의 이성과 감정을 지배해왔기 때문에, 문학, 사학, 철학을 비롯한 유럽 정신사에서는 '종교적 인간'으로서의 인간 본질의 한 측면이 각 분야별로 혹은 학제간의 연구와 토론을 통하여 지금까지 끊임없이 중요하게 논구되어왔다.

기독교적 종교성이 작동해서 기독교적인 종교성의 방식으로 자연과 인간의 삶에 변화를 가하는 것,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를 기독교문화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세계의 형태가 기독교문명이다. 따라서 기독교적 종교성은 유럽인들의 존재여부와 상관이 있는 인간의 동선을 알려주는 무늬인 것이다.²²⁾ 그러므로 철학이든 역사든 문학이든 유럽 내의 어떤 지역, 어떤 나라의 인간의 무늬를 알려면 기독교적 종교성은 반드시 고려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근대독문학을 형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고대 그리스, 로마 서사문학(Antike-Epik), 르네상스 서사문학(Renaissance-Epik) 그리고 성서(Bibel)임을 생각할 때,²³⁾ 독문학 이해를 위한 기독교적 종교성의 이해와 성서적 언어에 대한 강조는 아무리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며, 이런 인문학적 맥락에서 루터의 성경번역은 다시 한 번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21) 박종소 저, 17세기 독일 종교서정시에 나타난 교회비판의 사상적 배경, 11~13쪽 참조.

22) 최진석 지음, 생각하는 힘 노자인문학, EBS <인문학 특강> 최진석 교수의 노자 강의, 위즈덤하우스 2015, 18쪽 참조.

23) 박종소 저, 중세기사소설 「파르치팔 Parzival」에 나타난 '기사됨'의 종교적 의미, 「독일어문학」 제25집(12권 2호) 2004년 6월, 134쪽.

〈참고문헌〉

- 김옥동 지음, 번역의 미로. 번역에 관한 열두 가지 물음, 글항아리 2011.
- 라데군디스 슈톨체 지음, 임우영 외 옮김, 번역이론 입문. 번역학 꿰뚫기, 한국의국어대학교 출판부 2011.
- 롤란드 베인톤 저, 이종태 역, 마틴 루터의 생애, 생명의 말씀사 1982.
- 박경수(장로회신학대학교 역사신학과 교수/목사), 설교 '종교개혁 498주년 기념강좌. 은혜와 믿음으로 받은 선물, 마르틴 루터', 인천 동노회 남선교회 순회헌신예배 주관, 2015년 8월 2일(you tube 게시일).
- 박종소, 중세기사소설 「파르치팔 Parzival」에 나타난 '기사됨'의 종교적 의미, 「독일어문학」 제25집(12권 2호) 2004년 6월, 121-137쪽.
- 박종소, 괴테와 「교회와 이단의 역사 Kirchen- und Ketzehistorie (1699-1700)」, 「독일어문학」 제36집(15권 1호) 2007년 3월, 23-42쪽.
- 박종소, 괴테의 「베르터」에 나타난 성서적 표현과 그 의미. 성서적 암시를 통해서 본 베르터의 죽음, 「독일어문학」 제117집(52권 1호) 2011년 3월, 57-82쪽.
- 박종소, 17세기 독일 종교서정시에 나타난 교회비판의 사상적 배경, 도서출판 하늘과 땅 2008.
- 최진석 지음, 생각하는 힘 노자인문학, EBS <인문학 특강> 최진석 교수의 노자 강의, 위즈덤하우스 2015.
- 서울대학교 독일학연구소 임종대의 6명 공저, 독일어권 유럽의 역사와 문화 1, 거름 2004.
- Lehmann, Hartmut: Das Zeitalter des Absolutismus. Gottesgnadentum und Kriegsnot. Stuttgart usw. 1980.
- Schrader, Hans-Jürgen: Art. "Pietismus", in: Sachlexikon Literatur, hrsg. von Volker Meid, München 2000, S. 692-700.
- Germany.travel: Martin Luther 2017: 500 Jahre Reformation. Eine Spurensuche. Wirkungsstaette.
- Wikipedia. Die freie Enzyklopädie, Art. "Reformationsstadt Europas".

〈Abstract〉

Reformationsstadt in Deutschland

- Geistesgeschichtliche Bedeutung der Reformationsstadt Wartburg -

Park, Chong So

500 Jahre sind vergangen, seit Martin Luther seine 95 Thesen an die Tür der Schlosskirche zu Wittenberg schlug. Ein Ereignis, das die Welt veränderte - und Anlass für ein großes Jubiläum, das 2017 nicht nur in den Lutherstädten Wittenberg und Eisleben gebührend gefeiert wird. Martin Luther, Mönch, Professor und Reformator, steht im Mittelpunkt des Jahres: Deutschland lässt einen seiner größten Söhne hochleben. Dem Anlass schließt sich die vorliegende Arbeit an, indem sie die Bedeutung der Reformationsstadt Wartburg in der deutschen Geistesgeschichte zum Gegenstand macht. In der Wartburg hielt sich der Reformator Martin Luther als "Junker Jörg" 1521/22 versteckt und übersetzte während dieser Zeit das Neue Testament der Bibel ("Septembertestament") in nur elf Wochen ins Deutsche. Er übersetzte dabei nicht wortgetreu, sondern versuchte, biblische Aussagen nach ihrem Sinn ins Deutsche zu übertragen.

Seitdem haben Protestanten in Deutschland die Lutherbibel in ihren revidierten Neuauflagen bis heute verwendet. Die Sprache Luthers, die sich zuerst im musikalischen Niederschlag des deutschen Komponisten und Lieddichters sehr viel ausdrückte, erfuhr später auch noch, also in dem deutschen Pietismus und in der deutschen Literatur ihr Echo. Dies ist ein

Beweis dafür, dass die Lutherbibel eine wichtige Rolle für die deutsche Sprache und Literatur gespielt hat.

Der vorliegenden Arbeit geht es hauptsächlich darum, mit dem Beispiel von Luthers Bibelübersetzung in der Reformationsstadt Wartburg und Goethes Briefroman Werther zu zeigen, welchen Stellenwert die christliche Religiosität und deren biblische Sprache beim Interpretieren eines literarischen Werkes besitzt. Es wird versucht, zu demonstrieren, dass die christliche Frömmigkeit als Instrument zum Verstehen eines deutschen literarischen Textes, in dem viele Bibelanklänge der Sprache zu finden sind, unumgänglich ist. Goethes Werther bildet in diesem Zusammenhang keine Ausnahme, weil Goethes Sprache auch nicht wenig von der biblischen Sprache geprägt ist, wobei beispielsweise die Relation zwischen Werther und Jesu Christo im Hinblick auf den Tod Werthers mittels der biblischen Anspielungen besonders herauszustellen ist.

Key Words : Luther, Reformation City of German, Wartburg Castle and Translation of the Bible, German Pietism, Biblical language in the Literature

이 논문은 2017년 10월 31일에 접수되어 11월 20일 1차 심사를 거쳐 12월 10일에 게재 확정되었습니다.